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로버트 존스톤 Robert Johnston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기독교와 문화”, 특별히 “신학과 영화”를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존스톤이 내한했다. 지난 3월 3일 IVP 주관 하에 “영화와 영성, 교회는 왜 영화를 환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그를 만났다.

번역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사진 신효영

하나님께서서는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_로버트 존스톤(Robert Johnston)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그를 만나게 된다. 듣게 된다. _켄 가이어(Ken Gire)
영화가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_가레스 히긴스(Gareth Higgins)
21세기 문화 속에서 신성을 만난다. _크레이그 뎃와일러(Craig Detweiler)

하나님이 영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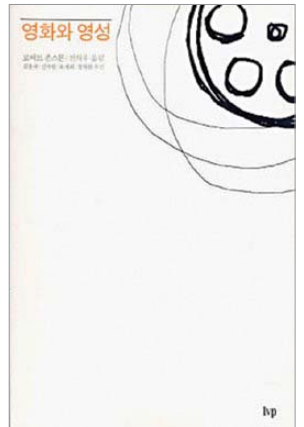
또 영화의 영성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화에 나타나신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신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켄 가이어(Ken Gire)는 “나는 교회보다 극장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다. 영화가 늘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깊은 깨달음이나 영감을 주는 것도 아닌데, 초월을 넘어 하나님을 경험하곤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지 바나(George Barna)라는 사회학자는 현재 성인의 20%가 주로 미디어와 예술, 문화를 통해 영적 체험을 하고 있으며, 2025년경에는 35%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삶의 의미를 반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야기,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영화, 당신의 인생과 무슨 상관 있을까?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가장 감동 받은 영화와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즉 거룩한 분을 만나고 빛을 얻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깊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진리를 엿볼 수 있는 영화를 본 적은 있다, 즉 일종의 교육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주제를 가진 영화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할 때 이 세 종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Editor's Comment



영화와 영성

이 책은 신앙과 영화, 혹은 기독교와 영화 사이의 서막한 관계에 난감해하는 이들에게 둘의 화해와 창조적 관계를 이끄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또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신학을 풀어내며, 신학이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종교와 사회, 교회와 영화관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첫 번째 부류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펭귄의 행진>(March of the Penguins)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황제펭귄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남극에서 태어나 물속에서 3,4년 지내다가 다음 세대를 낳기 위해 밖으로 나와 어딘가를 향해 멀리 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설자인 모건 프리먼은, 미국의 각종 미디어에서 종종 하나님 역할을 하는 배우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펭귄도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암컷들끼리 싸우고, 수컷은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모건 프리먼은 그들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냐 묻습니다. 펭귄 이야기이지만 삶의 신성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March of the Penguins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르칠 때, 어떤 학생 부부 와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람 전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는데, 신학교 졸업 직전 이미 두 군데에서 청빙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북쪽의 작은 동네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직으로, 작은 동네라 간호사인 부인이 직업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아이를 기를 수 있고 집이 제공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밴쿠버의 변화가에 위치한 작은 교회로 불신자들을 전도·개척해야 했고,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아내가 파트타임이라도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영화 본 다음 날 그 학생이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더군요. 영화를 보고 집에 가지마자 아내와 얘기했답니다. 저 펭귄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틀림없이 우리도 보살펴 주실 거라고, 그리고는 밴쿠버의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입니다.

두 번째, 영화 속에서 나를 보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감화, 깨달음, 충격 등을 받았다 합니다. 한 학생이 정서적으로 완전 피폐해져서 남과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영화를 본 후,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들던 한 30대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성탄절 즈음에 그녀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 그녀를 강간하고 때리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끌고 나와 빈터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5년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 술과 마약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 후 성탄절, TV에서 <It's a Wonderful Life>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1946년 작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TV에서 시도때도없이 계속 돌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It's a Wonderful Life

이 영화는 미국 작은 마을의 은행가인 조지 베일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그는 일을 하느라 대학에도 가지 못했고 여행도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출세를 하거나 마을을 떠나 모험을 하는데, 자신은 고향에 남아 지긋지긋한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문제가 생겨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의 순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을 때 클라란스라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는 조지가 크고 작은 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해줍니다. 조지가 없었더라면 친구,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영화를 통해 그녀는 처음으로 삶의 작은 소망을 보았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지만 아직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미한 나의 작은 일이 어느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후 자살 생각이 사라졌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반추해보게 됐다. 주인공 조지가 했던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영향을 미쳤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아주 작은 결정이나 작은 일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 조약돌 하나에 파문 이 일듯, 나쁜 경험은 물론 좋은 일도 사람들에게 물결치며 번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풀리신학교에 와서 지난 2~3년간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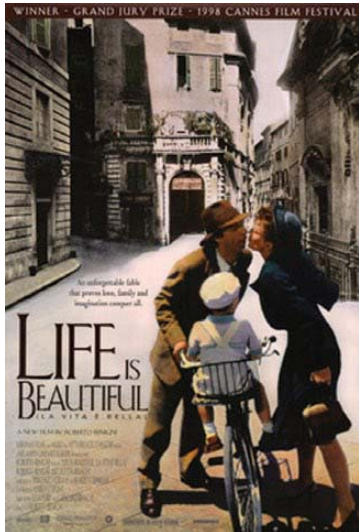
— 그녀의 글 중

이것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았다고 말하죠. 이들은 자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영화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의 비유로서의 영화

세 번째 부류는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신앙생활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은 적은 있다고, 그래서 영화는 하나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 더 깊이 다가오고 강권하는 힘으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Life Is Beautiful)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무렵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도시로 간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20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과 마을 광장을 지나다가 제과점에 크게 '개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안 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인 아이는 아버지에게 “그래서 유대인이 뭐가 문젠데?” 하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겁먹지 않도록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기는 스페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가게이고, 저 약국은 중국 사람도, 쟁겨루도 안 된다고 쓰여 있다고. 그리고는 “우리는 뭐가 안 된다고 할까? 원하는 게 있을 얘기해봐.”라고 묻습니다. 영화 후반에는 주인공이 자신의 상상력과 유머로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에서 아이를 보호합니다. 전반부의 유머러스한 것들이 후반부의 참혹한 현실과 대조되면서 훨씬 더 극악하게 그려집니다. 영화를 본 많은 학생들은 아버지에게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무한한 사랑,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일종의 비유같이, 교육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생이 된 딸이 잠시 이탈리아에서 지낼 때 함께 여행을 하면서,

영화 속 마을 광장의 그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영화 속 아버지와 아들처럼 딸의 손을 꼭 잡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의 힘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비유일 수 있었지만 저는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화는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영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하나의 비유 정도”입니다.

영화가 신학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레미제라블〉. 가족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몇 년을 견디다 탈옥하여 어떤 교회로 들어갑니다. 신부님이 그를 받아줬는데 그는 그곳에서 은 식기를 훔쳐 달아납니다. 결국엔 체포당하고 훔친 은 식기도 발각되죠. 그러나 신부님은 그가 훔친 게 아니고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은촛대까지 얹어줍니다.

그의 은총이 장발장을 변화시키죠. 그렇게 그는 아주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년간 장발장을 쫓아다니던 경찰은 법에 흠뻑 젖어 살구요.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인간적이고 풍성한 사람이, 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점점 협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법에 도취된 경찰은 결국 자살을 하고 말죠.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Yes'는 하나님의 'No'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로 호세아 11장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핵심, 그것은 대속과 은혜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은총과 사랑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화가 일종의 계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인 거죠. 열왕기하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등장하는데, 이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아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

다며 길을 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요시아 왕은 어떤 면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 분명 속임수라고 말이죠. 결국 요시아는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화를 마무리하면서, 요시아 왕이 바로 느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쳐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Editor's Comment



허무한 아름다움

현대 영화를 통해 전도서를 읽는 동시대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책. 현대 영화의 문제제기와 전도서의 양방향 대화를 방법론으로 삼아, 고대의 지혜자와 오늘날 영상으로 말하는 현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인생의 역설적인 주제들을 탐구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영화와 문화를 보는 방식에 한 차원 더 역동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연구서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도서 메시지를 현대 영화를 통해 역동적으로 풀어내며, 설교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신학적 통찰을 이끌어낸다. 또한 최근 영화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뒷이야기로 재미를 더해준다.

시대를 넘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책을 쓰셨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는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입니다. 영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 하비 콕스(Harvey G. Cox)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신조의 시대를 넘어 신비의 시대로 넘어간다.” 여기서 ‘신조의 시대’란 신조, 교리 등이 강조되던 시대를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교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모범적인 삶, 교황으로써 신는 특별한 빨간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나, 밤중에 조용히 빠져나와 무상 급식을



*하버드 교수 하비 콕스(Harvey G. Cox)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신앙의 시대를 넘어 경의의 시대로 넘어간다.”*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 법보다 은혜를 먼저 앞세우는 모습 등은 감동적입니다. 성추문 때문에 망가지고 교리적인 권위 때문에 딱딱해진 교회가 아닌, 이러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황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고 심지어는 록 음악잡지인 <롤링스톤즈>의 표지 인물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젠 논리나 교리가 아니고 간증이자 예증입니다. 영화가 그런 경험, 그런 간증의 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신학과 예술, 신학과 영화

‘발견’(Discovery)와 ‘계시’(Revelation)의 어원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Discover means to uncover.”(발견이라는 것은 결국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Reveal means to unveil.”(계시란 베일로 가려져 있던 것을 걷어내는 것을 말한다) 둘 다 뒤쪽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앞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발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셨다.’,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견과 계시는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견’이 자연적인 면이 강하다면, ‘계시’는 초자연적인 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둘은 흡사해서 구별이 쉽지 않으며 의미상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 면이 더 강조되는 듯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신학과 예술, 특별히 신학과 영화에 관한 논의에 어떤 열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영적일 수 있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보는 눈, 즉 교만의 눈인가 사랑의 눈인가입니다. 영화를 영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판단하기에 앞서 영화가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열어 영화를 받아들이고 판단이든 비판이든 하는 것입니다.

*말들이 어렸을 적, 너무 피곤해서 이야기를 받으면 건성으로 듣고 있었습니
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하고 있었
죠. 제 생각에는 필요한 대답은 다 했
습니다. 그런데 말이 왜 듣지 않냐고 하
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어 제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건성으로 대
답할 때와는 정말 다른 답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들으면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을 열면, 대답하는 태도, 분위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달라집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떨 땐 스토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얘기하려는 걸 못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나와 너>(Ich und Du)에서 ‘나와 너(관계)’, ‘나와 그(대상)’의 관계를 대조합니다. 영화가 영적이 되려면 내가 우리 말에게 정신 차리고 듣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고 듣고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화든지 예술 작품이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본 내용은 IVP와 풀리신학대학원과 협력하여 진행된 세미나의 내용 일부이며 IVP를 협조로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IVP관계자 분들과 통역으로 수고해주신 신국원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로버트 존스톤

스탠포드대학교 풀리신학교, 듀크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93년부터 풀리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시티오브엔젤 영화제의 실행위원이기도 하다. 복음주의, 신학/종교와 예술, 신학과 영화, 교회와 연예 산업, 신학과 현대 소설, 구약 지혜문학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저서로 <Grace upon Grace> 등이 있다.